

지역 매 아리

김제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지원사업 '아리' 참여자 모집

김제시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20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아리(All-Re)'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아리' 사업은 '모든 것(All)을 다시, 새롭게(Re)'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김제시 사업명으로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게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등 초기비용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된 청년 누구나 1인 또는 소규모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단일 사업으로는 전북 최대 지원규모인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예비 창업자 및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10명 내외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인테리어비, 경영지원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장비 임차료 등 창업 초기비용을 1팀(인)당 최대 1,8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도 공모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친 기본 집합교육과 개인별 맞춤형 컨설팅, 멘토링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장비 임차료 등 창업 초기비용을 1팀(인)당 최대 1,8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도 공모에 계속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2년간 지원이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폐기위기 나무 재활용 추진

완주군, '나무은행' 예산절감·녹지확보 1석 2조 효과 '톡톡'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를 기증받아 관리하는 완주군의 '나무은행'이 예산절감과 녹지확보라는 1석2조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지난 30일 완주군에 따르면 나무은행은 용진을 운곡리에 201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 기증목은 물론이고,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나무 중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거나 이식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나무들은 공공사업장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군은 나무은행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완주군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규정'을 수립해 수목지원활동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만경강제방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돼 제거될 400여 그루의 수목을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앞 도시숲 조성과 삼례동초등학교에 이식해 6억여원의 예산을 아꼈다.

주민들의 동참 열기도 뜨겁다.

올 상반기 동상면의 조인식씨는 양질의 산딸나무 200주를 기증했고, 기증목은 화산면 가로변과 체육공원에



완주군은 '나무은행 조성 및 운영규정'을 수립하고 '나무은행'은 용진을 운곡리에 2016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다.

식재됐다. 삼례읍의 김춘만씨는 느티나무 16주, 산딸나무 50주, 산수유 50주를 기증했고 이를 삼례읍 수도산 근린공원에 식재했다.

이 같은 기증목 식재로 군은 1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나무은행 조성

“아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제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어르신에게 카네이션 등 전달

김제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75명은 아버지날을 맞아 그동안 안락한 등 보살펴 왔던 어르신 2,025명에게 직접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는 훈훈한행사를 펼쳐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행사는 2010년부터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매년 추진해 왔으며, 올해 10번째로 생활관리사들이 직접 선물을 모아 정성스럽게 마련한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양말 세트 등을 전달해 드렸다.

함께 지내는 가족이 없어 혼자 쓸쓸하게 아버지날을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생활관리사들의 따뜻한 관심은 잠시나마 외로움을 위로받고 행복한 아버지날로 기억 할 수 시간이 되었다.

한편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은 금산면 일원에서 워크숍을 통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공연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을 다지는 재충전의 기회를 갖은 바 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은 “돌보는 사람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의 역량강화와 재충전으로 우리시 어르신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김산동 복지기동대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김제시 김산동 맞춤형복지팀과 복지기동대(대장 전용구)는 지난 4월 18일부터 생활속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노후화된 전기배선 점검, 가스, 수도, 소규모 집수리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김산동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이번 봉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총 42건의 생활불편사항을 접수·발굴하여 노후전선 및 LED등 교체, 보일러 수리 등 11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31건은 현재 굶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정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산동복지기동대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노후전선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세대 등이 생활속 불편사항 해소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유지 및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아동에게 쾌적한 보금자리 마련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사업 선정

완주군이 주거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사하게 됐다.

완주군은 최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거비 지원사업'에 선정돼 드림스타트 아동 1가정을 지원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임대보증금, 월세, 개보수 및 신축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완주군은 사업 선정으로 드림스타트 아동 1가정이 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의 가정은 평소 배수와 난방문제로 불편을 겪어왔고, 지원을 통해 배관설치, 천정 단열, 바닥 및 벽체 타일, 양변기 및 세면기 설치, 외부단열공사를 진행했다.

수리가 된 집을 본 아동의 어머니는 “겨울에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추워서 화장실 가는 게 불편했는데 올 겨울엔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 관계자는 “완주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과 그 가족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인재 양성지원, 정기후원금, 가구구입비, 체납료 납부등으로 완주군드림스타트 대상 가정(약 30가구)에 직간접 도움을 주었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보건소,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큰 호응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에서 관절염 환자의 통증완화 및 인공관절 수술로 인한 통증이나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이 참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

김제시 거주 만65세 이상 인공관절 수술자, 관절염환자를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중운동교실은 총 27기, 80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질병 등 불참 사유 발생으로 중도탈락주민이 발생됨에 따라 추가 인원 1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은 오는 7월17일까지 주3회(월, 수,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4시부터 5시까지 2개반

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희망자는 보건소 방문보건팀(☎540-1328, 540-1359)에 신청하면 된다.

수중운동교실은 아쿠아빙을 이용하여 물에서 생기는 저항과 부력 등을 이용하는 유산소운동은 물론 근력강화까지 가능한 수중 운동으로 수중운동교실에 참가한 금구면 김00씨는 “고관절 골절로 수술한 지 1년이 조금 지났는데 수중운동을 하니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증상이 호전되어 걷기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줘서 김제시에 너무 고맙다”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감과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김제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 5월 가정의 달 다양한 행사 풍성

김제시립도서관 금구분관은 가정의 달(매년 5월)을 맞아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의 의미를 인식하는 다양하고 유익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정의 달 주요 행사로는 오는 5월 15일에 사랑 듬뿍 양말목 화분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먼저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재할

용품 양말목을 활용하여 공기정화식물 틸란드시아 공예 작품 만들어 가족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5월 23일에는 5~7세 유아를 대상으로 5월에 즐기는 인형극과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공으로 간 토끼” 인형극을 보고, ‘토끼와 자라’, ‘검피 아저씨의 뱀눈이/존 버닝햄 글’ 동화책을 읽은 후

아이들이 하고 싶은 역할을 맡아 동극 체험 활동을 한다.

8일, 15일, 22일에는 수요 가족영화의 날로 ‘굿 다이노’, ‘모아나’, ‘보스 베이비’ 영화 3편을 상영한다.

특히 8일에서 24일까지는 금구분관 로비에서 원화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며, 종합자료실 및 아동자료실에서 가족 관련 도서 전시가 한 달 동안 지속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